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3>

다시 무슨 부처를 찾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조주의 1구는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반구(半句)도 없어.”
 스님이 물었다.
 “어찌 화상(和尚)께서 없을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노승은 1구(一句)를 인정하지 않아.”

問 如何是 趙州一句 師云 半句也無 學云 豈無和尚在 師云 老僧不是一句

일구는 선사들이 던지는 한 마디이다. 보통 선사들은 선객들을 접화할 때 자주 쓰는 일구를 가지고 있다. 그 일구는 선에 들어맞고 도에 들어맞는 한 마디이다. 이 일구는 가끔 선객들의 화두가 되기도 하는데, 선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마디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객들이 귀중하게 여긴다. 학승은 조주 스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한 마디를 듣고 싶어서 조주의 일구를 물었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일구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아니, 조주 자신은 평소 반구조차 두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선(禪)의 핵심에 들어가려면 일구조차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선의 핵심부를 아는 데에는 정제된 일구조차도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가끔 선승들이 선구 한 마디나 선적 인 사상이 담긴 구절을 거물로 삼으면서 평생 간직하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조주 선사는 그러한 것을 전혀 두지 않고 살아간 선승이다.

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혹 기이한 행동이나 방향을 자유롭게 구사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도의 실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 문답은 어떤 문구나 사상에 사로 잡혀 있으면 그 문구 때문에 오히려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한 선문답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경계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은 한 쪽 다리를 드리웠다.
 스님이 곧 신발을 내놓았다.
 조주 스님은 발을 도로 끌어당겼다.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問 如何得不被諸境惑 師垂一足 僧便出鞋 師收起足 僧無語

선은 유혹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혹은 온갖 진리나 주의주

장은 모두 허망한 개념 위에 계속 지식을 쌓아놓는 것에 불과하다. 세상사 이치는 알맹이는 없이 모두 껍데기만 이루어져 있는 양파와도 같다. 따라서 세상사 이치는 진실에 근접하지 않는다. 선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아무리 작은 것에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언제 어느 때든지 본래 마음을 잘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희비애락과 분노에 대해서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관리가 물었다.
 “부처님이 제실 때에는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 귀의하였지만 부처님이 멸도하신 다음에는 일체 중생이 어디에 귀의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중생이란 있는 적이 없어.”

선사들의 한마디는 핵심을 관통한다

아버지를 죽인 자는 4은을 저버린 자

관리가 물었다.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되물었다.
 “다시 무슨 부처를 찾는가?”

有俗官問 佛在日 一切衆生歸依佛 不滅度後 一切衆生歸依什麼處 師云 未有衆生 學云 現問次 師云 更覓什麼佛

흔히 사람들은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부처님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불교를 절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중생은 없었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사람이 어리석고 집착이 강해서 자기 자신을 부처로 보지 못하고 중생으로 보는 것이다.

진실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은 아무나 갖춘 것이 아니다. 객관적 관점을 얻은 사람만 진실을 본다. 선사는 깨달음을 통해 영연에서부터 관점이 바뀐 사람이다. 선사는 항상 진실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간혹 선사가 바라보는 눈은 도인의 안목이기 때문에 중생과 다른 차원에서 본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중생이 보는 눈과 선사가 보는

눈은 같다.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은 없다. 다만 선사는 중생을 모두 진자 부처로 보지만 중생은 스스로 부처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위 문답에서 조주 스님은 마지막으로 “중생을 두고 다시 또 무슨 부처를 찾는가?”하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중생이 부처인데 도대체 무슨 부처가 멸도하였단 말인가?” 하는 날카로운 지적인 것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사은삼유(四恩三有)에 보답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있다.”
 스님이 물었다.
 “어떤 자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아버지를 죽인 자이다. 너는 다만 이 한 물음이 부족하였구나.”

問 還有佛報四恩三有者也無 師云 有 學云 如何是 師云 這殺父漢 靠你只少此一問

<심지관경>에 4은은 삼보(三寶)의 은, 국왕의 은, 부모의 은, 중생의 은이라고 했다. 3유는 3계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생유(生有: 태어날 때), 본유(本有: 성장했을 때), 사유(死有: 죽을 때)를 말하기도 한다. 결국 일생 동안 받은 4가지 은혜가 4은(四恩三有)이다.

아버지를 죽인 자는 당연히 4은을 저버린 자이다. 그 과보는 매우 무거워서 고통이 쉬지 않는 무간 지옥에 들어가 수많은 시간을 참혹하게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아버지를 실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단절한 사람이 있다. 바로 출가자이다. 출가자는 법을 체득하기 위해 엄정한 마음을 가져야 하므로 부모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야 한다. 혹 도를 얻어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해도 일체 중생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부모에 얽매이면 안 된다. 출가 사문은 글자 그대로 세속을 벗어난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죽인 사람이다.

출가인이 열심히 수행하여 도를 얻으면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국왕과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지만, 혹 일생동안 수행한다고 하면서 결국 도를 얻지 못하면 부모와 국왕의 은혜는 고사하고 자기 한 몸조차 제대로 건수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것 만큼 허망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국왕과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과보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당장 일생을 산중에서 허비한 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8

단식은 무명·악업 끊는 것

#재식(齋食: 공양하는 것) 또 공양에는 다섯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가르침을 맛보고 기뻐하는 법회식(法喜食)인데 여래의 정법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열식(禪悅食)인데 안팎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고, 셋째는 염식(念食)인데 항상 부처님들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상응하는 것이고, 넷째는 원식(願食)인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라도 행·주·좌·와·항상 선한 일을 서원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해탈식(解脫食)인데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여 세상의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재식(齋食)이라 하느니라.

[원문] 可名爲齋 又持齋者 食有五種 一者法喜食 所謂依如來正法 歡喜奉行 二者禪悅食 所謂內外澄寂 身心悅樂 三者念食 所謂常念諸佛 心口相應 四者願食 所謂行住坐臥 常行善願 五者解脫食 所謂心常清淨 不染世塵 持五淨食者 名爲齋食 若復有人 不食如是五種淨食 自言持齋 無有是處

[해설] 일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 하게 되면 좋은 인연들이 옵니다. 본래 내 마음이 부처며 이 우주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일념으로 정진하게 되면 구태여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수행을 통해서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고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소유의 가르침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진 할 때 내 마음도 맑아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좋은 인연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하나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능력을 못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참 진리의 가르침에 행복을 느끼면서 하나의 행을 하고자 노력 하는 것이 첫 번째 공양입니다.

선열식(禪悅食)은 육안의 눈을 갖고 사는 중생의 입장에서 쉬운 말이 아니지만 진리 실상에서 우주를 마음에서 본다면 물질이 아니기에 안과 밖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진을 해서 안과 밖이

없는 돌이 아닌 하나의 소식을 알고 행한다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두 번째 공양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번뇌로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분별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을 염식(念食)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세 번째 공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원식(願食)입니다. 경계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마음속에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해탈식(解脫食)입니다. 수행할 때는 본래 자리에 마음을 두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행을 하더라도 바로 놓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동성 스님 작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또 단식을 한다는 것도 무명과 악업의 음식을 끊는다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심신을 함부로 하여 온갖 악업을 지으며, 여러 가지 욕망에 깊이 빠져 부끄러워 할 줄 모르면서 음식만 먹지 않으면 자연히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 하니, 힘이 없는 아이가 씩어 문드러진 시체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지극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원문] 又言斷食者 斷無明惡業之食 世有迷愚 不悟斯理 身心放逸 造諸惡業 貪念欲情 不生慚愧 唯斷外食 自爲持齋 何異癡兒 見爛壞死屍 稱名有命 必無是處

[해설] 달마 스님이 말하는 단식은 무명과 악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마음에서는 온갖 욕심을 끊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인 하나의 도리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가운데 욕심을 부리며 악업 짓는 것을 끊는 것이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만 먹지 않으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 하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 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 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 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 집안 동도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 착구탈 정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비술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관계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솔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 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 前生의 夫婦인연 원집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 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 귀장술 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착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